

언어 영역

제 1 교시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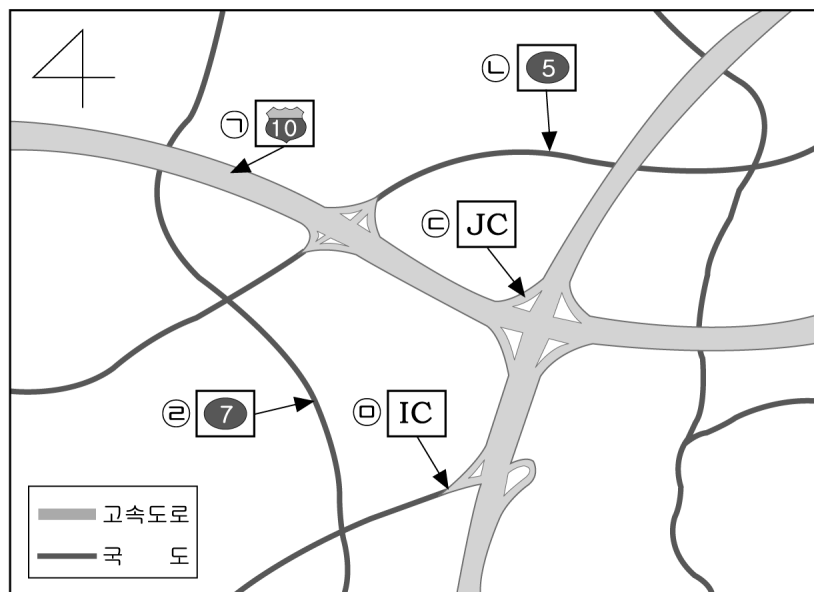
수험번호

1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안에 수험 번호,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과 1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합니다.

1. (물음) 대화에서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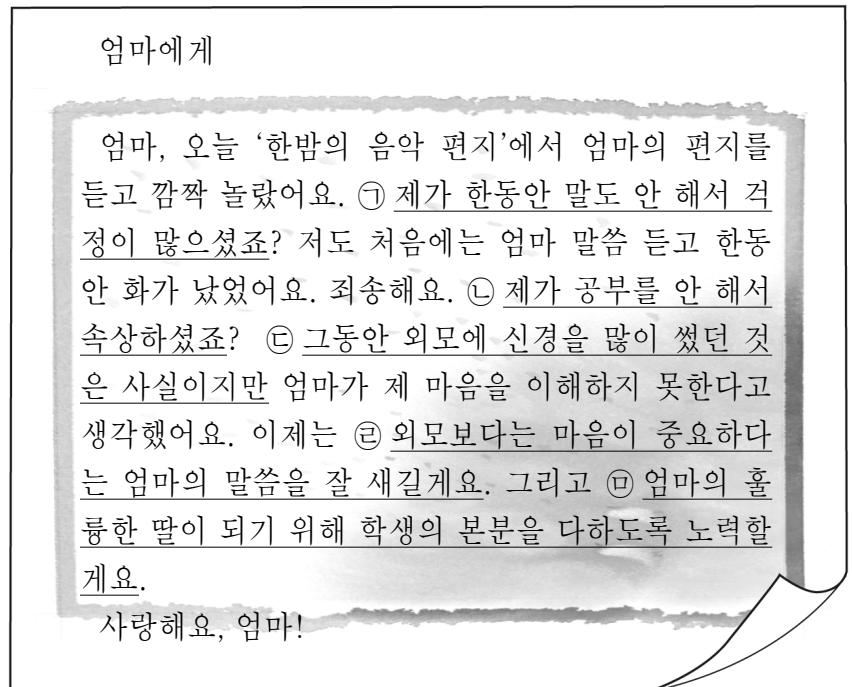


- ① ㉠ ② ㉡ ③ ㉢ ④ ㉣ ⑤ ㉤

2. (물음) 강연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통문화의 중요성
- ② 우리 영화의 세계화 방안
- ③ 문화와 기술의 접목 필요성
- ④ 디지털 기술로 복원된 전통문화
- ⑤ 영화 속에 나타난 문화 콘텐츠 기술

3. (물음) 다음은 어머니의 편지에 대한 딸의 답장이다. 어머니의 편지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쓴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드라마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 ① 훈민정음은 이두를 바탕으로 창제되었다.
- ②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모의 수는 28개였다.
- ③ 신하는 이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 ④ 신하도 처음에는 훈민정음 사용을 반대하지 않았다.
- ⑤ 임금은 훈민정음을 통해 백성을 교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5. (물음) ‘임금’의 말하기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 ② 문제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적절한 비유를 사용하여 상대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 ④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펼치고 있다.
- ⑤ 상대 주장의 모순을 지적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그림에 착안하여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한다.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그림	→	착안 내용	→	이끌어 낸 교훈
	→	㉠	→	순리에 맞게 살아야 한다.
	→	물은 막히면 돌아간다.	→	㉡
	→	물도 가다가 굽이를 친다.	→	㉢
	→	㉣	→	덕(德)을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깊은 물은 소리가 없다.	→	㉤

- ① ㉠ :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② ㉡ : 융통성 있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③ ㉢ :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④ ㉣ : 물이 깊어야 고기가 모인다.
 ⑤ ㉤ :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7.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명상의 시간’에 들려 줄 짧은 글을 작성하고자 한다. 주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3점]

< 보 기 >

행 복 <꽃말> 행 운

<조건> ◦ 비유적으로 표현할 것
 ◦ 대구적 기법을 사용할 것

- ① 세 잎 클로버 사이에서 네 잎 클로버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운에 대한 집착만 버리면 수많은 세 잎 클로버가 전하는 행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 ② 어떤 사람은 네 잎 클로버에서 행운을 떠올리고, 어떤 사람은 세 잎 클로버에서 행복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행운이든 행복이든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③ 네 잎 클로버처럼 행운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도 의미 있는 삶입니다. 하지만 조연의 역할에도 행복해 하는 세 잎 클로버와 같은 삶에도 따뜻한 시선을 주어야 합니다.
- ④ 행운은 네 잎 클로버처럼 우연히 찾아오고, 행복은 세 잎 클로버처럼 언제나 곁에 있습니다. 어찌다 마주치는 행운을 기다리기보다 가까이 있는 행복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⑤ 네 잎 클로버와 세 잎 클로버는 겨우 이파리 하나가 다를 뿐입니다. 이런 작은 차이만 인정한다면 멀리 있는 행운에 집착하지 않고 행복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8. ‘자전거 사고를 줄이자’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모은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자전거 사고 현황

<경향>

(나) 자전거 사고의 내용(2006년)

장소	도로	가정	공원	기타
비율	65.7%	12.3%	11.8%	10.2%

원인	넘어짐	끼임	차체 파손	부딪힘	기타
비율	46.4%	40.2%	10.3%	2.1%	1.0%

사고유형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보행자
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0.5명	1.8명	4.8명	5.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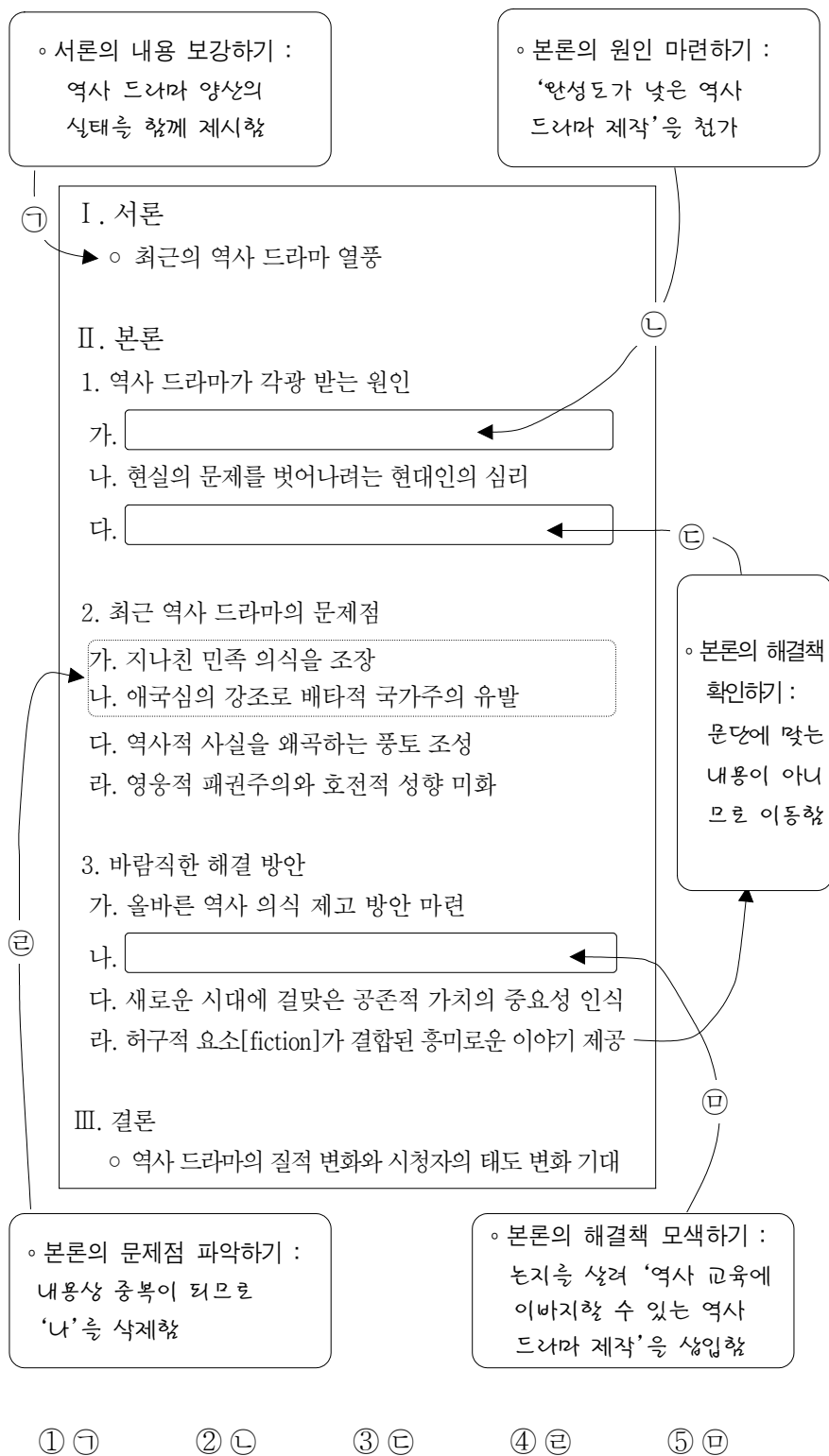
(다)

자전거의 차체 결함이 자전거 사고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었다.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는 자전거 중에는 수입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들 제품의 불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계 당국은 2006년 말부터 자전거 검사 수준을 ‘안전 검사 품목’에서 ‘자율 안전 확인 대상 품목’으로 낮추었는데, 이에 따라 불량 제품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접이식 자전거 구매자가 자전거의 조립을 전문점에 맡기지 않고, 직접 조립하는 것도 자전거 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 신문 기사에서 -

- ① (가)를 활용하여, 최근 자전거 사고의 증가에 따라 사망자수도 늘고 있는 실태를 제시한다.
- ② (나)를 활용하여, 사고 유형에 따른 사망자 수를 볼 때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의식에 문제가 있음을 밝힌다.
- ③ (다)를 활용하여, 자전거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 ④ (가), (나)를 활용하여, 자전거 사고의 증가가 자전거 이용 공간과 관련이 있음을 밝힌다.
- ⑤ (나), (다)를 활용하여, 자전거 사고의 발생 원인이 접이식 자전거 조립 불량이나 차체 파손에도 있음을 주장한다.

9. ‘역사 드라마 열풍’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개요를 작성하였다. 개요의 수정 및 보완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0. ‘칭찬하는 문화만들기’를 제안하는 글의 초안이다. 고쳐 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여러분은 칭찬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 칭찬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칭찬은 사람들에게 자신감과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칭찬을 받았을 때, 더 잘하고자 노력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 그러므로 우리는 학교에서 얼마나 칭찬을 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무관심과 비난으로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 따뜻한 온정이 담긴 칭찬 한 마디는 친구에게 기쁨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회에서는 ‘칭찬합시다!’ 캠페인을 펼쳐 행복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캠페인과 관련하여 ㉣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제안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 참여 부탁드립니다.

- ① ㉠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을 예로 들어 내용을 강화하는 것이 좋겠어.
- ② ㉡은 문단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그런데’로 바꿔야겠어.
- ③ ㉢은 의미가 중복되므로 ‘따뜻한 마음’으로 고쳐야겠어.
- ④ ㉣은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이므로 ‘좋은 생각이 있는’으로 고쳐야겠어.
- ⑤ ㉤은 문맥을 고려하여 ‘참석’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어.

11.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 보기 〉

‘주책’은 ‘일정한 생각, 또는 짓대’를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짓대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여 도무지 요량이 없다.’는 의미로 사용할 때에는 ‘주책없다’라고 해야 바른 표현이다. 하지만 ‘그 나이에 저런 행동을 하다니 주책이다.’처럼, 문맥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 ① 그런 짓을 하다니, 칠칠맞은 녀석아!
- ② 그 어려운 일을 해내다니 여간내기야.
- ③ 진지해야 할 회의 시간에 방정 떨지 마.
- ④ 나는 미국에서 우연치 않게 그녀를 만났다.
- ⑤ 가족들은 안절부절하며 수술 결과를 기다렸다.

12. <보기1>을 바탕으로 <보기2>를 설명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1〉

우리말에서 복수를 표시하는 접미사에는 ‘-들’, ‘-회’, ‘-네’가 있다.

- -들 : 여러 품사 뒤에 붙어서 복수 표시를 한다.
- -회 : ‘저’와 ‘너’ 뒤에 붙어서 두 대명사를 복수형으로 만든다.
- -네 :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무리나 집안, 가족을 나타낸다.

〈보 기2〉

- ㄱ. 어서들 오너라.
- ㄴ. 그럼 즐겁게 놀게들.
- ㄷ. 천천히 먹어들 보아라.
- ㄹ. 너희도 그 안전에 동의했다.
- ㅁ. 어제 순희네에서 전갈이 왔어요.

- ① ㄱ처럼 ‘-들’을 부사에 붙여 쓸 수 있어.
- ② ㄴ처럼 ‘-들’이 문장 종결 어미에 놓일 수 있어.
- ③ ㄷ의 ‘-들’의 자리를 옮겨 ‘천천히’에 붙여 쓸 수 있어.
- ④ ㄹ의 ‘너희’를 ‘너희들’로 바꾸어 쓸 수도 있어.
- ⑤ ㅁ의 ‘순희네’ 뒤에 다시 ‘-들’을 붙여 쓸 수 있어.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장미꽃 처럼 곱게 피어가는 화로에 숯불,
입춘 때 밤은 마른 풀 사르는 냄새가 난다.

한겨울 지난 ㉠ 석류 열매를 쪼개어
홍보석 같은 알을 한 알 두 알 맛보노니,

투명한 옛 생각, 새론 시름의 무지개여,
금붕어 처럼 어린 여릿여릿한 느낌이어.

이 열매는 지난해 시월 상달, 우리 둘의
조그만한 이야기가 비릇될 때 익은 것이어니.

작은 아씨야, 가녀린 동무야, 남몰래 깃들인
네 가슴에 줄음 조는 옥토끼가 한 쌍.

옛 못 속에 헤엄치는 흰 고기의 손가락, 손가락,
외롭게 가볍게 스스로 떠는 은(銀)실, 은(銀)실,

아아 석류알을 알알이 비추어 보며
신라 천 년의 푸른 하늘을 꿈꾸노니.

— 정지용, 「석류」 —

(나)

꿈을 아느냐 네게 물으면,
플라타너스,
너의 머리는 어느 덧 파아란 하늘에 젖어 있다.

너는 사모할 줄 모르나
플라타너스,
너는 네게 있는 것으로 그늘을 늘인다.

먼 길에 올 제,
홀로 되어 외로울 제,
플라타너스,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이제 너의 뿌리 깊이
나의 영혼을 붙여놓고 가도 좋으련만,
플라타너스,
나는 너와 함께 신(神)이 아니다!

수고론 우리의 길이 다하는 어느 날,
플라타너스,
너를 맞아줄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이 있느냐?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네 이웃이 되고 싶을 뿐,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다.

— 김현승, 「플라타너스」 —

(다)

열어 젖히매
나타난 달이
흰구름 좇아 떠가는 것 아니냐?
새파란 냇가에
기량의 모습이 있구나.
이로부터 냇가 ㉡ 조약돌에
낭의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좇누아저.
아아, 잣가지 높아
서리 모르올 화반(花班)이어.

— 충담사, 「찬기과랑가」 —

13.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에는 시대 상황에 대한 고뇌가 담겨 있다.
- ② (가)와 (다)에는 현실의 모순에 대한 풍자가 나타나 있다.
- ③ (나)와 (다)에는 대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④ (가) ~ (다)에는 모두 초월적 세계에 대한 동경이 나타나 있다.
- ⑤ (가) ~ (다)에는 모두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감이 드러나 있다.

14. ㉠과 ㉡의 공통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시의 분위기를 신비롭게 조성한다.
- ② 시상 전개에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된다.
- ③ 시적 화자에게 내적 갈등을 일으키게 한다.
- ④ 시적 화자에게 과거의 대상을 떠올리게 한다.
- ⑤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 세계를 보여준다.

15. <보기>의 ㉠~㉣와 관련해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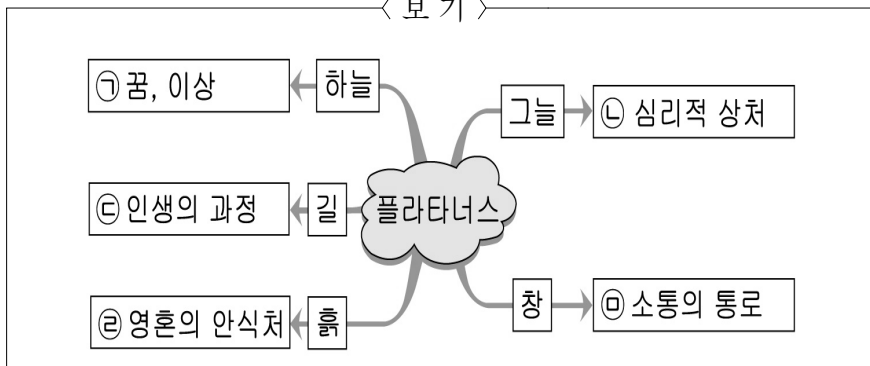
㉠ 감정이 과잉 노출되지 않도록 절제된 언어로 시를 형상화하는 능력은 정지용 특유의 것이다. 그는 대상에 대한 언어적 묘사를 통해 하나의 ㉡ 독특한 시적 공간을 형상화한다. ㉢ 감각적이고 참신한 이미지의 도입, ㉣ 선명하고 세련된 표현의 선택 등이 그의 이미지즘의 특징이다.

한편, 그는 생활 속의 일상어를 시의 언어로 사용한다. 그의 시에서는 ㉤ 상태와 동작을 한정하는 고유어로 된 부사를 활용하여 사물의 상태나 움직임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는 예가 자주 발견된다.

- ① ㉠: ‘외롭게 가볍게 스스로 떠는’에서 ‘외롭게’와 ‘가볍게’를 나란히 놓아서 외로움의 정서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있어.
- ② ㉡: ‘신라 천 년의 푸른 하늘’에서 ‘푸른 하늘’은 화자가 슬픈 역사를 고뇌하는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어.
- ③ ㉢: ‘밤은 마른 풀 사르는 냄새가 난다’에서 ‘밤’의 시각적 심상이 ‘풀 사르는 냄새’의 후각적 심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 ④ ㉣: ‘옛 못 속에 헤엄치는 흰 고기의 손가락, 손가락’이라는 표현은 시각적으로 선명한 느낌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 ⑤ ㉤: ‘여럿여럿한 느낌이여’의 ‘여럿여럿’은 석류알의 부드럽고 여린 감촉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16. (나)에서 ‘플라타너스’의 시적 의미를 <보기>와 같이 정리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17. (다)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풍상(風霜)이 섰거친 날에 갓 피은 황국화(黃菊花)를
금분(金盆)에 가득 담아 옥당(玉堂)에 보내오니
도리(桃李)야, 꽃인양 마라 님의 뜻을 알패라.

— 송순의 시조 —

- ① (다)의 ‘갓가지-서리’는 <보기>의 ‘황국화-풍상’과 대응된다.
- ② (다)와 <보기>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③ (다)와 <보기>의 화자는 모두 대상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있다.
- ④ (다)와 <보기>에서 대상의 부재는 화자에게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 ⑤ (다)의 ‘화반’은 그리움의 대상이고, <보기>의 ‘님’은 원망(怨望)의 대상이다.

18. (다)의 화자와 유사한 태도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은?

- ① 강호(江湖)에 병(病)이 겹쳐 독림(竹林)의 누웠더니, 관동(關東) 팔백리(八百里)에 방면(方面)을 맞디시니, 어와 성은(聖恩)이야 가디록 망극(罔極)하다.
- ② 천년(千年) 노룡(老龍)이 구비구비 서려 이서, 듀야(晝夜)의 흘러 내여 창회(滄海)에 니어시니, 풍운(風雲)을 언제 어더 삼일우(三日雨)를 디런느다. 음애(陰崖)에 이온 풀을 다 살와 내여스라.
- ③ 북두성(北斗星) 기우려 창히슈(滄海水) 부어 내여, 저 먹고 날 머 겨늘 서너 잔 거후로니, 화풍(和風)이 습습(習習)하야 양익(兩腋)을 추혀 드니, 구만리(九萬里) 당공(長空)에 저기면 놀리로다.
- ④ 비로봉(毗盧峰) 상상두(上上頭)의 올라 보니 괴 뉘신고. 동산(東山) 태산(泰山)이 어느야 눕듯던고. 노국(魯國) 조본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넓거나 넓은 텃하(天下) 엇찌하야 적닷 말고. 어와 더 디 위를 어이하면 알 거이고.
- ⑤ 정기(旌旗)를 썰티니 오식(五色)이 넘노는 듯, 고각(鼓角)을 섰부니 희운(海雲)이 다 짓는 듯. 명사(鳴沙)길 니근 물이 취선(醉仙)을 빗기 시러, 바다홀 것틱 두고 희당화(海棠花)로 드러가니, 백구(白鷗)야 느디 마라, 네 버딘 줄 엇디 아는.

[19 ~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방언이 지역적 혹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언어 변이라면, 화체(話體・style)는 격식의 정도 차이에 따른 ㉠언어 변이를 의미한다. 사람들은 말을 할 때에 때로는 매우 편하게, 때로는 매우 조심스럽게 말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조심스러운 화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화체를 선택하게 된다. 라보프(Labov)는 피험자(조사를 받는 사람)가 인터뷰 도중에는 격식적인 화체를 쓰다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 온 아이에게 말할 때나 인터뷰를 하는 사람에게 커피를 건넬 때에 비격식 화체를 쓰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그는 피험자로 하여금 일정한 양의 글이나 일련의 어휘들을 읽게 함으로써 읽기 전보다 격식적인 화체를 이끌어 내었다. 그리고 피험자에게 감성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여 비격식적인 화체를 이끌어 내었다. 이렇게 하여 그는 화체가 3~4단계로 변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화체적 변이는 청자 지향적 계획(audience design)과 조정(accommodation)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 가지 이상의 변이형을 사용할 줄 아는 화자는 청자에게 맞추어 말의 단계를 선택한다. 이를 청자 지향적 계획이라고 한다. 가령, 라디오 아나운서는 자신의 화체를 청중에게 맞추어 선택하게 되며, 동일한 아나운서라도 뉴스를 말할 때와 대중 음악 방송에서 노래를 소개할 때는 각각 다른 화체를 선택하게 된다. 특정한 청중에게 맞는 화체를 선택함으로써 그 아나운서는 자신과 청중을 하나로 만들거나 동일한 집단에 속한다는 의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서로 다른 발음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대화를 살펴보면 두 사람의 발음이 비슷하게 되어 가는 보편적인 성향이 나타난다. 조정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과정은 지방으로 이사 온 사람이 점차 자신의 말을 그 지방에서 사용하는 말로 바꾸게 되는 것을 설명해 준다. 서로 다른 변이형을 사용하는 화자들 간의 대화를 녹음하여 들어 보면 몇몇 언어적 특징들을 사용하는 비율이 같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화자의 말 - 어휘, 문법적 형태, 발음 - 이 청자의 말을 닮아 가는 것이다.

이런 사회 언어학적 현상은 사회적 제약을 받는 아주 기본적인 언어적 특징들과 관련되어 있는 듯하다. 사람들은 의미 차이가 없는 사회적으로 단계화된 변이형을 선택하면서 말을 하게 된다. 따라서 언어 변이는 우발적이거나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언어가 개인의 성별(性別), 교육의 정도, 사회 경제적 지위, 지리적 요인, 종교적 배경 등 여러 가지 생생한 사회적 요소들을 더하여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언어 변이의 복잡성은 변이에 반영된 사회적 힘이 변화의 역동성을 제공하여 언어가 어떻게, 왜 변화하는가를 이해하게 한다.

19.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방언은 언어 변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 ② 감성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격식적인 화체가 쓰인다.
- ③ 화자는 발화 상황에 알맞은 언어 변이형을 고려한다.
- ④ 언어 변이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요소들이 반영되어 있다.
- ⑤ 화자는 특정한 화체를 선택하여 집단의 소속감을 나타낸다.

20.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를 이해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기 > —

영 희 : 여보세요.

민서 엄마 : 형님, 안녕하십니까? 저 민서 엄마입니다. ㉠

영 희 : 작은엄마, 오랜만이야. 민서는 잘 있어?

민서 엄마 : 아, 영희구나. 이제 크니까 목소리가 어머니랑 똑같네.

어머니 좀 바꿔 줘. ㉞

영 희 : 엄마, 전화 받아. 작은엄마야.

영희 엄마 : 너는 언제까지 어른한테 반말할래? ㉞

영 희 : 앞으로 안 그럴게요. ㉔

영희 엄마 : (수화기를 건네받으며) 여보세요. 잘 지냈어, 동서?

민서 엄마: 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

- ① ㉠에서는 화자가 청자에게 격식의 정도가 높은 화체를 쓰고 있어.
- ② ㉡에서는 화자가 청자에게 맞는 화체로 조절하고 있어.
- ③ ㉢에서는 화자가 청자에게 화체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 ④ ㉣에서는 화자가 청자의 지시에 따라 화체를 수정하고 있어.
- ⑤ ㉤에서는 화자가 청자와 발음이 닮아가는 조정이 나타나 있어.

21.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이 일어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가 청자를 고려하여 말을 하기 때문이다.
-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 ③ 화자가 청자와 다른 화체를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 ④ 특정한 공간에서 사용하는 특수어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 ⑤ 새로운 사물들이 생겨나 새로운 어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2 ~ 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때무리라 불리는 작은 섬마을에서 두 아들을 바다에서 잃고 가난 때문에 딸마저 중국 유곽에 팔아버린 늙은 아버지(낙정)는 마지막 남은 아들인 천명을, 외삼촌(공주학)의 배에 태워 집안의 생계를 잇도록 하려 한다. 외삼촌 역시 일손이 필요하기에 천명을 자신의 배에 태워 뱃일을 시키려 한다. 하지만 천명은 어떻게든 바다를 등지려 하며, 이를 위해 석 달이나 섬을 떠나 항구를 방황하였으나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다시 섬으로 돌아온다.

주학의 처 : 형님, 저 녀석을 그대루 뒀다간, 또 항구루 도망가서 외상밥 처먹구, 우리 못할 일 할거요. 우리가 그 밥값 장만하느라 구 얼마나 애 쓴 줄 아우? 내년 봄에 팔랴든 새우젓을 모두 미리 팔아서 변통을 했었소.

공씨 : 자네 볼 닳 없네.

주학의 처 : 저 담밑에, 보통이 보시구료. 어쩐지 하는 짓이 수상합디다만, 설마 그러랴 했었소.

공씨 비로소 보통이를 발견하고 경악한다.

주학의 처 : 내가 쌍심지가 나서두, 저 녀석을 기어쿠 내보내구 말겠소. 저런 녀석은 배에서 안짱물두 뒤집어써보구, 마파람에 돛줄 붙들구 휘날려보기두 해야, 정신을 좀 채릴거요.

공씨 (천명에게) : 어서 개루 나가, 이눔아,
(중략)

천명 : 큰성두 작은성두 배에서 죽었어요. 큰성은 조기사리 나갔다가 덕적서 황서방이 배동거리만 찾아왔구, 작은성은 새우사리 나갔다가 댐마다리 밑에 대가릴 처박구 늘어진 걸 누나하구 어머니가 끌어 내 왔어요.

주학의 처 : 그때 노대에 죽은 사람이, 어디 네 성들 뿐이었던? 때무리서만 엮어진 낙배가 스무 척이 넘었구, 연평서 깨진 중선이 쉰 척이 넘지 않았냐?

천명 : 내가 나가구 나서, 비나 억수 같이 퍼붓구 높새에 부엌 문짝이 덜그덕거리기나 해보세요, 우리 어머니 또 산으루 개루, 밤새 울구 땀길 거예요. 난 배타른 속이 울렁거려서 그러는 게 아니예요. 어머니 울구 땀기는 게 진절머리가 나서 그래요.

공씨 : 너같은 애물에 자식은, 하루바삐 잡아잡시사구, 내가 서낭님께 축수하겠다, 이눔아.

공씨 말은 모질게 하나, 눈에서는 눈물이 펄펄 쏟아진다.

천명 : (다시 어머니에게 매달리며) 어머니, 물에서 하는 일이든, 뭐든지 할테예요. 어렸을 때부터 일하든서 한 번이라도 투정한 적 있었어요? 학교 갔다 와선, 물끝 따라 십 리나 나가서 밤새 조깅 잡었지요? 행여 조개가 밟힐까 하구 개펄을 일 년 열두 달 후비적거리는 발자국을 모아보세요. 만주를 가구두 남을 테니. 겨우내 동아젓, 황새기젓을 절이구나믄, 손등이 터진 자리에 호소금이 들어가 씨라려 죽겠지만, 한 번인가 난 싫다구 안 했어요.

주학의 처 : 아주 청산유수 같구나. 이를테면 어머니한테 네가 공치사하는 셈이나?

천명 : (그의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흐느껴우는 듯한 소리로 말을 계속한다) 야기상점에서두 그렇지. 여섯 시문 어업 조합에 가서 생선을 받아오니, 새벽 세 시부터 쓰루배(詛瓶)질*을 해서 물을 길어요. 고길 세어 가지구, 하루 종일 호-쥬(鉤丁)*루 펄펄 뛰는 놈을, 대가리 토막을 치구, 창잘 갈르고 있으믄, 나중엔 그놈의 조기 눈깔들이 모두 날 흘겨보는 것 같어, 몸서리가 쳐요. 그렇지만 난 참을 때까지 참어왔어요.

공씨 : (울며) 이눔아, 에미 애비하구 살아갈랴는데, 어디 수월한 게 있는 줄 아니?

천명 : 없으니까 선창에서 소금을 날르믄서두, 어디 내가 고생한다구 편지 했어요? 안했지요?

공씨 : 이눔아, 네가 지금 물에서 버느니, 물에서 버느니 하구 있

게 됐니? 긴긴 겨울을 뭇 먹구 살꾸, 할 때가 아니냐?

천명 : 그렇니까 항구에 가서 벌은 되지 않어요? 축항에 가서, 바가대(起重機)* 짐두 지구, 선창에 가서 하시께(浮船)* 날일두 할 테예요.

*쓰루배(詛瓶)질 [일본어] : 물을 퍼 올리는 일

*호-쥬(鉤丁) [일본어] : 생선을 다듬는 칼

*바가대(起重機) [일본어] :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기계

*하시께(浮船) [일본어] : 항(港)이나 내해(內海)에서 화물을 운반하는 배

— 함세덕, 「무의도 기행」 —

22. 위 글을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건 전개를 고려하여 조명은 어두운 분위기로 유지한다.
- ② 어촌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파도치는 소리를 준비한다.
- ③ 고단한 삶이 드러나도록 남루한 옷과 어구들을 마련한다.
- ④ 출어를 하는 어부들의 분주한 삶이 느껴지도록 무대를 항구로 설정한다.
- ⑤ 현장감을 살리기 위하여 등장인물로 하여금 사투리를 구사하게 한다.

23. 위 글의 등장인물에 대해 나는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씨는 배를 타기 싫어하는 천명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생활 형편 때문에 그것을 허락할 수 없어.
- ② 천명도 공씨가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바람을 알지만, 이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 ③ 주학의 처는 천명을 배에 태우려고 과거에 천명이 진 빚을 갚아준 일을 들추어내며 공씨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 ④ 천명과 주학의 처 사이의 갈등이 점점 첨예해지는 것은 서로가 같은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 ⑤ 천명, 공씨, 주학의 처가 각각 현실에서 경험하는 고통은 이들의 삶을 더욱더 각박하게 만들고 있어.

24. 위 글을 감상한 후 <보기>와 같이 작가와 인터뷰를 한다고 가정할 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작가 : 저는 늘 작품을 통해 인간은 언제나 아픔과 좌절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시대적 상황과 관련되며, 개인적인 욕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학생 : 그렇다면 이 작품에도 작품이 창작된 1930년대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었다는 건가요?

작가 : 그렇지요. 저는 _____

- ①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젊은이를 주인공으로 설정했습니다.
- ②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갈등은 어느 시대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 ③ 생존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배를 탈 수밖에 없는 당시 어부들의 궁핍한 삶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 ④ 섬을 배경으로 하여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인간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 ⑤ ‘바다’와 ‘물’이라는 대립적인 공간을 설정하여 ‘물’을 동경하는 섬사람들의 심리를 부각시키려 하였습니다.

[25 ~ 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성리학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성리학에서는 인간이 본래 도덕적이고 착하다고 보았다. 물론 성리학이 백성이 굶주리고 헐벗는 문제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덕성을 갖춘 인간이 되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현실적 방안보다는 선한 마음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이 고민했고, 사회를 운영하는 근본적인 힘은 법과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다.

정약용은 성리학에서 믿어 의심치 않았던 여러 생각을 찬찬히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먼저 ‘인간은 도덕적이기만 한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이에 정약용은 인간 본성은 이미 하늘의 이치가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인간 성품이란, 어떤 사람은 커피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뽕뽕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기호(嗜好)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무엇을 좋아하느냐는 결국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그래서 정약용은 기호를 버리고 인간의 성품을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성(性)은 기호다.’라고 주장해 ‘성은 곧 인간 마음속에 있는 천리다.’라는 성리학의 근본 전제를 거부한 것이다. 당시 조선 사회가 성리학을 정치 이념으로 삼아 성리학적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점을 생각한다면, 정약용은 성리학에 대해서 품은 의심은 엄청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즉, 정약용은 인의(仁義) 등의 성이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리(理)’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다. 인(仁)은 사람이 서로 관계 맺는 그 생생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마음속에 있지 않다고 했다. 그렇다면 성리학처럼 자기 마음속 ‘리(理)’를 열심히 살필 것이 아니라 현실 생활 속에서 ㉠ ‘인’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인의’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약용은 인간에게는 두 가지 기호가 있다고 했다. 하나는 마음에 관계된 것으로 착한 것을 즐거워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며, 나쁜 일을 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탐욕을 경계하는 마음이다. 이것을 인간만이 가지는 ‘도심(道心)’이라고 했다. 다른 하나는 몸에 관계된 것이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빛깔을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따뜻하게 입고 배부르게 먹는 것을 좋아한다. 이것을 ‘인심(人心)’이라고 하며 인심은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가지고 있다.

[A] 즉, 정약용은 인간은 도심과 인심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마음만이 아니라 몸과 감정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도덕적으로 옳은 것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먹고 따뜻하게 지내는 것도 인간에게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몸이 좋아하는 것을 긍정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이제는 도덕의 완성에만 매달리지 않고 몸이 좋아하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양반이라도 농사를 열심히 짓고 배불리 먹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보다 잘 살기 위해 새로운 기계를 만들고 장사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양반도 상인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25. 위 글에 드러난 ‘정약용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의 성품은 기호라고 할 수 있다.
- ② 현실적 삶을 중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③ 사회 문제는 인격 수양에 힘쓸 때 해결될 수 있다.
- ④ 몸과 감정을 중시하는 태도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 ⑤ 인간의 성품은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26. [A]를 바탕으로 <보기>를 감상했을 때,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안빈낙도(安貧樂道)하리라 작정했지만
막상 가난하니 그제 안 되네.
아내 한숨 소리에 체면 구기고
굶주린 아이에겐 가르침이 너그러워진다.
꽃도 나무도 온통 생기를 잃고
글을 써도 책을 읽어도 온통 시들하기만.
부잣집 담 밑에 쌓인 곡식은
들사람들 보기에 좋을 뿐이네.

- 정약용, 「가난[歎貧]」 -

- ① 화자가 의도했던 안빈낙도의 삶은 ‘도심’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어.
- ②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자는 ‘인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꼈을 거야.
- ③ 아내와 자식에게 ‘도심’에만 힘쓸 것을 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요구야.
- ④ ‘부잣집에 쌓인 곡식’에 눈이 가는 것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인심’으로 보여.
- ⑤ ‘생기를 잃은 꽃과 나무’와 ‘시들해진 서책과 글’은 ‘인심’보다 ‘도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야.

27. 위 글로 미루어 ㉠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정성을 다해 친구를 사귈다.
- ② 약속을 잘 지켜 신뢰를 쌓는다.
- ③ 진리를 알기 위해 학문 연구에 힘쓴다.
- ④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않는다.
- ⑤ 자기에 대한 사랑을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시킨다.

[28 ~ 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서양에서는 왜 동양에 비해 약 1,200년이나 지난 뒤에야 풍경화가 그려진 것일까? 이것은 결코 우연한 결과가 아니다. 동양과 같은 전원적(全元的) 일원론*의 우주관이 결여되었던 서양에서는 풍경화가 애초부터 중요시될 수 없었다. 그들 문화권에서 자연성이란 신성(神性)과 반대 개념으로 이해되었고, 인간과 자연도 대립 관계로 생각되었다. 또한 신과 인간도 합치될 수 없는 분리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이 때문에 서양 정신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원론적 대립과 분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은 사유 형태는 미술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끼쳐 풍경화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으며 출현할 수 없는 문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중세와 르네상스의 미술은 거의 모두가 신과 인간을 주제로 한 것들이다. 특히 중세의 본격적인 회화 작품에서 풍경화란 전무하다. 신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연성을 바라본 중세 정신 속에서 ㉠ 도저히 자연 풍경이 주제가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르네상스로 넘어오면서부터 극히 예외적으로 작품의 주제를 살리기 위해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도입하고 있는 작품을 몇몇 볼 수 있다. 이는 16세기에 종전의 신(神) 중심적 권위가 인간의 세속적 권위로 서서히 바뀌면서 자연에 대한 태도 역시 중세와 같은 폐쇄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점차 열린 생각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 중심적, 자아 중심적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던 서양에서 미술의 중심 주제는 여전히 인간일 수밖에 없었다.

17세기에 대두됐던 풍경화가 본격적으로 각광을 받으며 많이 그려진 것은 낭만주의 시대이다. 본질상 낭만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자연 풍경화가 낭만주의의 대두와 함께 크게 번성했던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다. 낭만주의 정신은 자연의 불가사의한 깊은 힘에 대하여 친화감을 느끼면서 종래와는 다른 시각으로 자연을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 중심적이고 자아 중심적인 존재 세계의 편협한 구성이 사라지고, 인간은 오히려 우주의 작은 먼지에 불과할지도, 자연의 하찮은 존재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자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신적 배경은 자연스럽게 풍경화를 번성케 한 원인이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낭만주의 정신이 풍경화에서 가장 아름답게 개화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렇듯 서양의 풍경화는 낭만주의 사조에 의해 비로소 가치를 인정받고 무한한 발전의 토대를 다질 수 있었다. 그러나 서양의 풍경화는 그 문화적 배경이 다른 만큼 동양의 산수화와는 현격히 다를 수밖에 없었다. 서양은 주객 분리의 이원론적 사유 전통 속에서 세계와 자아를 대립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자아의 주관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했다. 그들이 생각하는 ‘나’란 우주 만물과 별개의 것으로 존립하면서 만물을 타자(他者)로 바라보는 주관성이다. 이러한 태도는 풍경화 양식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자연 풍경을 그리는 자와 대립적 관계로 바라보면서, ‘나’라고 하는 한 시점(視點)에서 정지된 주관성을 강조하는 풍경화 양식을 구축했다. 이것이 자연 풍경과 일체가 되어 그 속에서 다시점(多視點)의 유동성을 보이는 동양의 산수화와는 다른 점이다.

*전원적(全元的) 일원론 : 우주와 인간과의 합일성을 주장하면서, 실체와 현상의 이분을 허용치 않는 관점

28.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서양에서는 시대에 따라 자연에 대한 태도가 달랐다.
- ② 낭만주의의 대두와 함께 서양의 풍경화가 번성하였다.
- ③ 중세 서양에서 미술의 주제는 대체로 신이 중심이 되었다.
- ④ 서양의 풍경화는 전원적 일원론의 우주관에서 탄생하였다.
- ⑤ 동·서양의 풍경화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29.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감상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호베마, <미텔하르니스의 길>, 1689년

- ① 신과 인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자연 풍경을 도입하였군.
- ② 종교적 관점에서 벗어나 자연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군.
- ③ 자연에 대한 친화감보다는 자아 중심적인 세계를 표현하였군.
- ④ 실제 자연의 모습이 아니라 상상 속에 존재하는 풍경을 담아내었군.
- ⑤ 자연에 대한 사실적 묘사보다는 자연의 신비로움을 추상적으로 표현하였군.

30. [A]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산수화’의 특징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 보 기 >

- ㄱ. 인격 수양의 한 방법으로 생각되었다.
- ㄴ. 다양한 시점으로 대상이 표현되어 있다.
- ㄷ. 자연과 인간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 ㄹ. 그림의 배경이 되는 공간이 여백으로 처리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31. <보기>를 참고할 때, ㉠과 유사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어떤 낱말 다음에는 의미적으로 반드시 그 낱말과 보조를 같이하는 낱말이 와야 하는데, 이를 어휘적 호응이라고 한다.

- ① 그 문제는 풀기가 매우 어렵다.
- ② 그는 게으름을 절대로 피우지 않는다.
- ③ 그의 소식에 대해 도무지 들은 바가 없다.
- ④ 우리는 모름지기 정의 실현을 위해 힘써야 한다.
- ⑤ 납세의 의무는 국민으로서 응당 지켜야 할 책무이다.

[32 ~ 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내는 안팎으로 문단속을 착실히 하고, 그래도 미심쩍어서였는지 주인집 마누라에게 부탁까지 했다. 그것은 부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시위였다.

“저희들 말예요, 비우고 어디 좀 다녀올 텐데, 잘 좀 부탁드리겠어요.”

“아니 어디를 가시게?”

“참한 집이 있다고 해서요. 집도 구경할 겸 아이들 어린이 대공원 구경도 시켜 줄 겸 해서요.”

아내는 ㉠ 기세 좋게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주인집 마누라는 좀 셀쪽하는 눈치였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가족 일행 여섯 명은 집을 나섰다.

나는 택시를 좀 타고 싶었지만 아내의 고집대로 일반 버스를 탔다. 버스에 탄 사람들이 모두 우리 가족의 요란스런 행차를 주목하는 것 같았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가족 일행은 목적지까지 시끄럽게 떠들면서 달려갔다.

버스에서 내리자 바로 정류장 앞에 그 복덕방이 있었다. 나는 식구들을 밖에 세워 두고 복덕방 안으로 들어갔다. 전날의 그 복덕방 영감이 나를 맞았다.

“어서 오슈. 어제 그거 가파스로 이백 육십에 끊었소. 계약금 가지고 나오셨소?”

“계약금이야 지금이라도 당장 뛰어가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만, 그래 그 이하로는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만 사도 잘 사는 줄 아쇼.”

복덕방 영감은 ㉡ 더 말해 볼 건덕지도 없다는 투로 잘라 말했다. 부족한 돈 때문에 나는 좀 난감한 기분이었지만 못 사게 될 때는 못 사더라도 가오*가 죽을 필요는 없었다. 내가 말했다.

“계약은 그럼 이따라도 곧 하기로 하고요, 지금 내 가족들하고 함께 왔는데 다시 한 번 집 구경을 시켜줄 수 있겠습니까?”

“그거야 여부가 있겠소?”

복덕방을 나와 영감이 앞장서 걷기 시작하였다. 나는 저쪽 공터에 웅기중기 서 있는 가족들에게 눈짓하여 함께 복덕방 영감의 뒤를 따랐다. 아내가 내 옆에 바짝 붙어 서서 컹컹말로 말했다.

“뭘래요? 얼마나 깎을 수 있대요?”

“음, 이백 육십까지는 되는 모양이야.”

나는 좀 자신 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시내버스가 달리는 간선도로에서 팔 미터짜리 좁은 길로 우리 일행은 꺾어져 들어갔다, 그리고 담배 가게를 겸한 세탁소 앞에서 다시 사 미터짜리 골목으로 꺾어져 들어갔고, 십오 도 정도의 비탈길을 거슬러 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한 번 오른쪽으로 골목길의 커브를 돌면서 저만큼 문제의 집이 한쪽 귀퉁이부터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무심결에 언뜻 고개를 들었는데 그만 그것을 보고야 말았다. 그것은 바로 고압선이었다.

[A] 고압선은 걷고 있는 우리들의 머리 위를 엇비슷이 지나고 있었다. 그뿐이라면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겠다. 그러나 그 고압선은 바로 우리가 사고자 하는 집의 지붕 위를 거쳐서 달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 고압선은 아차산의 발밑에 매우 험상스럽게 생긴 철탑 전주 하나를 박아 놓고, 또 달려서 아차산의 능선 위에 세워진 또 하나의 철탑 전주를 거쳐 산을 넘고 있었다.

나는 섬뜩한 마음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역시 그 고압선은 반대 방향으로도 치달리고 있어서 우리가 버스를 내린 간선도로를 열십자로 가로질렀고, 중랑천 제방의 철탑 전주를 거쳐 중랑천을 건너고 있었다. 그리하여 중랑천 저쪽 배봉산 위에 세워진 철탑 전주 하

나가 그 늘어진 고압선을 받아 답십리 쪽으로 넘겨주고 있었다.

그제서야 나는 전날 복덕방 영감이 뒷밀을 구려 하며 무언가 숨기고 있었던 듯한 태도를 깨달을 수가 있었다. 전날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듯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얼핏 그것을 간과해 버리기가 십상이었다. 그러나 그 고압선은 엄연히 존재하여 우리가 사고자 하는 그 집의 바로 머리 위를 지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내는 그것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차마 가려해서 ㉢ 선뜻 아내에게 그것을 알려 줄 수가 없었다. 아내는 그저 턱없이 즐거워서 재잘거리며 걷고 있는 아이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내려다보면서 걷고 있었다.

목적했던 집에 이르러서는, 복덕방 영감의 안내로 모두 그 비좁은 마당 안으로 들어섰다. 마당 안으로 들어서서 나는 우선 고개를 발딱 젖혀 손바닥만 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그러나 그 하늘은 예닐곱 가닥의 고압선으로 갈기갈기 찢기어 있었다. 나는 그만 아주 비참한 마음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아내와 아이들은 나의 수상쩍은 행동이나 표정을 눈여겨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복덕방 영감을 따라 성큼 땃돌위로 올라가서 마루와 방과 다락을 구경하고 부엌과 지하실을 들여다보았다. 장남 기욱이 녀석은 ㉣ 마루 뒷방을 열어 보고는 나를 향해 이렇게 소리쳤다.

“아빠 아빠, 이 방은 내 공부방 했으면 좋겠지?”

㉤ 나는 그대로 마당 한가운데 멍청이 서서 기욱이 녀석에게 고개만 조금 끄덕여 주었다.

아내는 집 안팎을 마치 이 잡듯이 살살이 뒤지는 모양이었다. 그러면서 이 집이 우리 폰수로 얼마나 알맞추 그럴듯한 집인가를 거듭거듭 확인하는 듯한 눈치였다. 그리고는 만족한 미소를 띠며 내게 돌아왔다.

*가오[일본어] : 기세, 체면

— 조선작, 「고압선」 —

32.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회상 형식을 통해 갈등의 원인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빠른 장면 전환을 통하여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③ 시간적 배경을 부각시켜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대화와 서술을 균형 있게 배치하여 상황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 ⑤ 서술 시점에 변화를 주어 인물의 내면 세계를 심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33. ㉠~㉤에 담긴 인물의 심리를 표현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 그동안은 셋방살이 하느라고 당신한테 기가 죽어지냈지. 하지만 이제 우리도 꼴릴 게 없어. 곧 집을 살 거니까.
- ② ㉡ : 일단은 세계 나가야지. 그나저나 고압선이 있다는 걸 눈치 채지 못해야 할 텐데.
- ③ ㉢ : 사실대로 말하면 아내가 무척 실망할 텐데, 이를 어찌나. 정말 난감하군.
- ④ ㉣ : 야! 집도 넓고 방도 많구나. 이제 내 방도 가질 수 있겠는 걸. 너무 신난다.
- ⑤ ㉤ : 저렇게 좋아하니 어쩔 도리가 없군. 이제라도 가장 노릇을 하려면 서둘러 계약을 해야겠어.

34.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복덕방 영감은 고압선과 함께 피뢰침이 있어 오히려 안전하다고 둘러대며, 아내도 빨리 이사를 가자고 재촉한다. 그러다 살고 있는 셋집이 나가버리는 바람에 어쩔 도리 없이 그 집을 사게 된다. 이 사 간 집에서 가족들은 내 집이라는 만족감을 느끼며 행복해 하지 만 나는 께름칙한 기분을 떨치지 못하고 밤마다 잠을 설치곤 한다. 몇 달 뒤 아들의 친구였던 동네 아이가 건물 옥상에서 장대를 휘두 르다 감전사하고, 식구들은 그제서야 집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다. 나는 결국 집을 내놓으려고 복덕방에 가는데 복덕방 영감은 고압 선 때문에 제값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나는 그의 뻔뻔한 말에 화 를 낼 기력도 없이 그저 우울해진다.

- ① ‘나’가 고압선을 처음 보는 순간 충격을 받은 이유는 계층 간에 존재 하는 경제적 차이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 ② ‘나’는 결국 집을 사서 께름칙한 기분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 께 림칙함은 가족의 행복이 깨어질까 염려하는 소시민들의 불안 심리 라고 볼 수 있어.
- ③ 이사를 한 후 벌어진 사건을 고려할 때 고압선은 ‘나’와 같은 소시 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를 상징한다고 생각해.
- ④ 복덕방 영감의 행동은 집을 갖고 싶은 소망을 지닌 소시민들을 기 만하여 이득을 취하는 이기적인 세태를 보여주고 있어.
- ⑤ 작가는 현실 속에서 소시민들이 겪는 삶의 아픔을 보여주면서 그 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 연민을 드러내고 있어.

35.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사건 전개에 일관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②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인물의 심리가 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④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인물의 현실 대응 방식을 보여 주고 있다.

[36 ~ 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각설(却說). 홍공이 길동의 작란(作亂) 없으므로 신병이 쾌차하 고, 상(上)이 또한 근심 없이 지내더니, 차시(此時) 추구월 망간(望 間)에 상이 월색을 띠어 궁궐 후원에 배회하실 새, 문득 일진광풍 이 일어나며 공중으로부터 옥저 소리 청아한 가운데 한 소년이 내 려와 상께 복지(伏地)하거늘 상이 놀라 물어 가로되,

“선동(仙童)이 어찌 인간에 내려와, 무슨 일을 이르고자 하느냐?”

소년이 땅에 엎드려 아뢰되,

“신이 전임 병조판서 홍길동이로소이다.”

상이 놀라 물어 가로되,

“네 어찌 심야에 오느냐?”

길동이 대답하여 가로되,

“신이 전하를 받들어 만세를 모실까 하오나, 천비 소생이라, 문 (文)으로 조정에 나아가기 어렵고, 무(武)로도 벼슬길이 막힐지라. 이러므로 사방에 거리낌없이 다니며 관부(官府)에 폐가 되고 조정 (朝廷)에 득죄하옵은 전하가 아시게 하옵이러니, 신의 소원을 풀어 주옵시니 전하를 하직하고 조선을 떠나가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 하는 만수무강하소서.”

하고 공중에 올라 표연히 날거늘, 상이 그 재주를 못내 칭찬하시더 라. 이 후로는 길동의 폐단이 없으며 사방이 태평하더라.

각설. 길동이 조선을 하직하고 남경 땅 제도 섬으로 들어가 수천 호 집을 짓고 농업을 힘쓰고 재주를 배워 무고(武庫)를 지으며 군 법(軍法)을 연습하니 군사는 강하고 양식은 풍족하더라.

하루는 길동이 화살촉에 바를 약을 얻으러 망당산으로 향하더니 낙천 땅에 이르러는, 그곳에 부자 백용이란 사람이 있으니 일찍 한 딸을 두었으되, 재질이 비상하매 부모가 애중히 여겨더니 하루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 딸이 간 데 없는지라. 백용 부부가 슬퍼하며 천 금(天金)을 들여 사방으로 찾되 ㉠ 종적이 없는지라. 부모가 슬퍼하 며 말을 퍼뜨려 가로되,

“아무라도 내 딸을 찾아 주면 가산(家産)을 반분(半分)하고 사 위를 삼으리라.”

하거늘 길동이 그 말을 듣고 심중에 측은하기는 하나 하릴없이 망당산에 가 약을 캐며 들어가더니, 날이 저문지라 주저하더니 문 득 사람의 소리나며 등촉(燈燭)이 밝거늘 그 곳을 찾아가니 사람은 아니요 요괴(妖怪)들이 앉아 지저귀거늘, 원래 이 짐승은 울동이란 짐승이라. 여러 해를 묵어 변화가 무궁하더라. 길동이 몸을 감추고 활로 쏘니 그 중 괴수(魁首)가 맞은지라. ㉡ 모두 소리 지르고 달아 나거늘, 길동이 나무에 의지하여 밤을 지내고 두루 약을 캐더니 문 득 괴물 수삼 명이 길동을 보고 물어 가로되,

“그대는 무슨 일로 이 깊은 곳에 왔느냐?”

길동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의술을 알매 이 산에 들어와 약을 캐더니 그대 등을 만나니 다 행하도다.”

그것이 크게 기뻐하며 가로되,

“나는 이곳에 산 지 오래더니 우리 대왕이 부인을 새로 정하고 어젯 밤에 잔치하더니 천살(天煞)을 맞아 ㉢ 위중한지라. 그대 명의(名醫) 라 하니 선약(仙藥)으로 왕의 병을 고치면 큰 상을 얻으리라.”

하거늘 길동이 생각하되,

‘이놈이 어젯밤에 상처를 입은 놈이로다.’

하고 허락하니, 그것이 길동을 인도하여 문 밖에 세우고 들어가더 니, 이윽고 청하거늘 길동이 들어가 보니 화려한 누각 안에 흉악한 것이 누워 신음하다가 길동을 보고 몸을 일으키며 가로되,

“내 우연히 천살(天煞)을 맞아 위태하더니 부하들의 말을 듣고 그대를 청하였으니 ㉔ 이는 하늘이 살림이니라. 그대는 재주를 아끼지 말라.”

길동이 감사해 하고 가로되,

“먼저 안을 다스릴 약을 쓰고 다음에 밖을 치료할 약을 씌어 좋을까 하노라.”

그것이 응낙하거늘 길동이 약주머니에서 독약을 내어 급히 온수(溫水)에 타서 먹이니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소리 지르고 죽는지라. 모든 요괴 일시에 달려들거늘 길동이神通術(神通術)로 모든 요괴를 몰아내더니, 문득 두 소녀가 애걸하여 가로되,

“첩등은 요괴 아니라 인간 세상 사람으로서 잡히어 왔사오니 목숨을 구하여 세상으로 나가게 하소서.”

길동이 백용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곳을 물으니, 하나는 백용의 딸이요, 하나는 조철의 딸이라. 길동이 요괴를 소탕하고 낙천 땅에 돌아와 두 여자를 각각 제 부모를 찾아 주니 그 부모들은 ㉕ 크게 기뻐하여 그날로 길동을 맞아 사위를 삼았더라. 길동이 하루 아침에 백소저와 조소저 양처를 얻고 두 집 식구들을 거느리게 되니 모든 사람이 반기며 치하하더라.

하루는 길동이 천문(天文)을 보다가 놀라 눈물을 흘리거늘 여러 사람들이 물어 가로되,

“무슨 까닭으로 슬퍼하느뇨?”

길동이 탄식하여 가로되,

“내 부모를 하늘의 별자리로 안부(安否)를 짐작하더니 하늘의 형상을 본즉 부친 병세 위중하신지라. 내 몸이 멀리 떨어져 있어 임종(臨終)을 맞지 못할까 하노라.”

하니 여러 사람들이 슬퍼하더라. 이튿날 길동이 월봉산에 들어가 일장(一張) 대지(大地)를 얻고 묘(墓) 자리를 만들되 석물(石物)을 국릉(國陵)과 같이하고, 일척대선(一隻大船)을 준비하여 조선국 서강 강변으로 오라 명하고 즉시 머리를 깎아 승려 차림으로 일엽소선(一葉小船)을 타고 조선으로 향하니라.

— 허균, 「홍길동전」 —

36. 위 글에서 ‘길동’에 대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점성술에 조예가 깊었다.
- ② 많은 사람을 이끌고 조선으로 향했다.
- ③ 유교적 입신양명의 꿈을 가진 적이 있었다.
- ④ 임금으로부터 뛰어난 재주를 인정받았다.
- ⑤ 소원 성취 후에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지 않았다.

37. 위 글과 <보기>를 비교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처녀가 산 속에 사는 괴물에게 납치되자 그 아버지가 딸을 구해주면 전 재산을 반분하겠다고 한다. 시골의 가난한 한 선비가 그 소식을 듣고 무턱대고 산 쪽으로 가다가 다리가 부러져 울고 있는 까치를 만났다. 다리를 고쳐 주자 까치는 그에게 괴물이 살고 있는 땅굴을 알려준다. 땅 속으로 들어간 선비가 처녀를 만나 전후 사정을 말하자, 괴물은 황금빛을 띠는 멧돼지이며 다른 것은 무서워하지 않는데 흰말 가죽만 보면 겁을 낸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선비는 안으로 들어가 흰말 가죽으로 만든 담배 썸지를 들이대고 괴물이 벌벌 떠는 틈을 타 칼로 목을 벤다. 떨어진 머리가 계속 달라붙기에 처녀가 부엌에서 재를 가져와 뿌리자 괴물은 죽는다. 처녀를 구한 선비는 많은 재산을 얻고 그녀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산다.

—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 —

- ① <보기>와 위 글의 서사 구조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어.
- ② <보기>에서 선비는 처녀의 도움으로 괴물을 처단하는데, 길동은 혼자 힘으로 요괴를 처단하고 있군.
- ③ <보기>에서 선비는 까치의 도움으로 괴물이 있는 곳을 알게 되지만, 길동은 우연히 그 곳을 발견하고 있어.
- ④ <보기>에서 괴물을 멧돼지로, 위 글에서 요괴를 ‘흉악한 것’으로 표현한 것은 인간의 우월성을 드러낸 거야.
- ⑤ <보기>의 선비와 위 글의 길동은 모두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괴물과 싸웠다고 볼 수 있어.

38. 위 글의 주요 사건에 대한 ‘의미 및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배경	주요 사건	의미 및 평가
궁궐 후원	임금을 만나 이야기함	적서 차별의 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 ㉔
제도	농업과 군사 양성에 힘씀	국가에서 부여한 직분에 충실한 삶의 모습 부각 ㉕
망당산	요괴를 죽이고 두 여자를 구함	인물의 영웅적 면모 강조 ... ㉖
낙천	두 여자의 가족을 찾아 주고 환영 받음	인물에 대한 민중의 신뢰를 강화 ㉗
월봉산	아버지의 묘지를 조성함	‘효’라는 유교적 가치관의 실천 ㉘

- ① ㉔ ② ㉕ ③ ㉖ ④ ㉗ ⑤ ㉘

39. ㉔~㉘의 상황을 나타내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 : 오리무중(五里霧中)
- ② ㉕ : 자중지란(自中之亂)
- ③ ㉖ : 명재경각(命在頃刻)
- ④ ㉗ : 천우신조(天佑神助)
- ⑤ ㉘ : 환호작약(歡呼雀躍)

[40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통, 해일은 태풍이나 저기압에 의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해일을 폭풍 해일 또는 저기압 해일이라고 한다. 이와 달리 해저 지진이나 해저 지형의 융기와 침강 등에 의해 해수면이 변화하면서 발생한 해파(海波)에 의한 해일도 있다. 이를 쓰나미 혹은 지진 해일이라 한다.

쓰나미(tsunami)는 나루[津]와 파도[波]가 합쳐진 일본말로 ‘항구의 파도’를 의미한다. 지진 해일을 쓰나미라고 부르자고 지진 관련 학회나 국제 회의 등에서 합의한 적은 없지만, 1946년 ‘알래스카 지진 해일’ 이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는 태평양에 인접한 일본이 이런 지진 해일의 피해를 많이 받았다는 사실과 관련이 깊다.

쓰나미는 대부분 해저판 경계 지역에서 발생하는 큰 지진에 의한 단층 운동, 해저 화산 분출, 해저 산사태 때문에 발생한다. 지진에 의해 바다 밑바닥 지층이 수직 방향으로 갑작스레 이동하면 이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바로 위의 바닷물에 전해져 바닷물이 갑자기 상승 또는 하강하면서 지진 해일파가 발생한다. 2004년 12월,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을 강타한 수마트라 해저 지진도 안다만-순다 해구(trench)에서 인도-호주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의 갑작스런 이동, 즉 단층 운동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외해(外海)에서 쓰나미가 발생하게 되면 파고는 1m정도이지만 파장이 100km 이상이므로 근처에 있는 배에서는 이를 관측하기 어렵다. 쓰나미의 이동 속도는 약 시속 900km로 매우 빠르다. 그런데 해안에 가까이 올수록 수심이 얕아지기 때문에 파(波)의 속도는 느려지고 파고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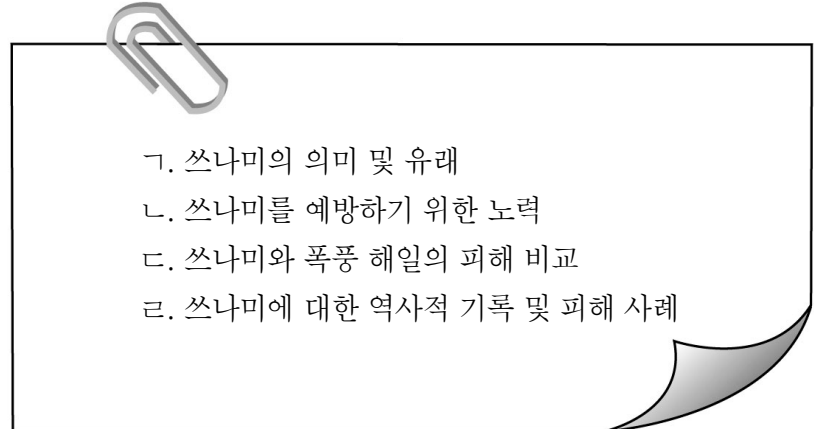
쓰나미의 발생과 피해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기원전 1500년 에게 해의 산토리니 화산섬의 폭발로 쓰나미가 발생해 지중해 동부와 크레타 섬을 광범위하게 황폐화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쓰나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실제 190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쓰나미는 1983년과 1993년 두 차례이며 모두 동해안에서 발생하였다. 그 당시 일본 서쪽 해저에서 발생한 강력한 지진의 여파로 1시간 30분~3시간 동안 10분 주기로 쓰나미가 몰려와 동해안의 여러 지역에 많은 피해를 주었다.

쓰나미는 다른 해일과 발생 원인이 다르므로 대처 방법도 달라야 한다. 먼저, 해안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 쓰나미는 몇 분 이내에 해안으로 밀려오므로 지진 경보를 듣고 대피할 여유가 없다. 따라서 땅이 심하게 흔들리면 무조건 해안 지역의 주민은 높은 지대로 대피하여야 한다. 해안에서 먼 거리에서 발생한 쓰나미에 대해서는 기상청이 해일 특보를 사전에 발표하므로 재해 대책 요원의 안내에 따라 대피하면 된다.

40. 위 글을 과학 잡지에 실는다고 할 때,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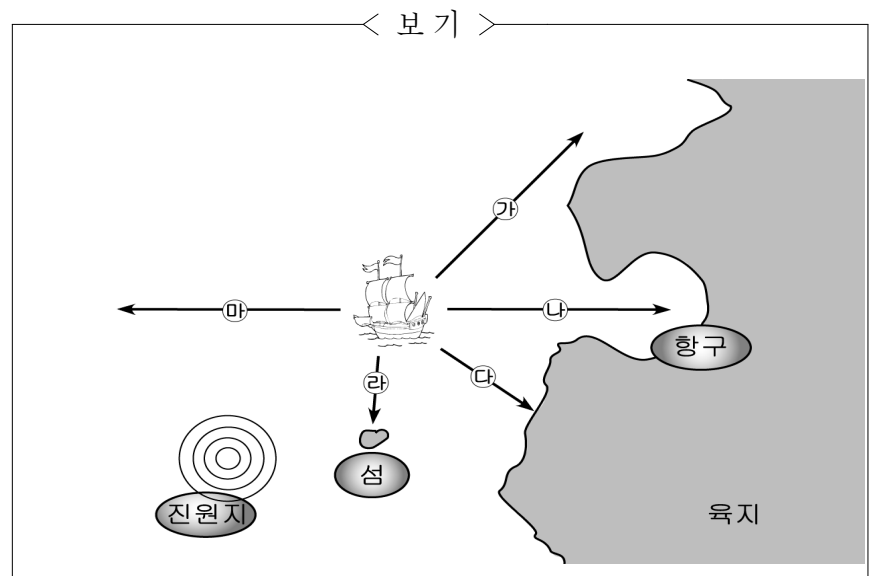
- ① 쓰나미의 두 얼굴
- ② 쓰나미의 탄생과 죽음
- ③ 대양의 폭군, 쓰나미의 정체
- ④ 여름철 불청객, 쓰나미의 모든 것
- ⑤ 역사 속으로의 여행, 자연 재해 쓰나미

41. 위 글을 쓰기 위한 메모라고 할 때, 글을 쓰는 과정에 반영된 것을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1점]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2. [A]를 참고하여 <보기>와 같이 외해에서 쓰나미 경보 발령을 접했을 때, 배의 안전을 위한 대처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원지와 최대한 멀어지기 위해 ㄱ의 방향으로 이동한다.
- ② 항구 내로 대피하기 위해 ㄴ의 방향으로 이동한다.
- ③ 가장 가까운 해안으로 대피하기 위해 ㄷ의 방향으로 이동한다.
- ④ 가장 가까운 섬에 상륙하기 위해 ㄹ의 방향으로 이동한다.
- ⑤ 육지와 멀어지기 위해 ㅁ의 방향으로 이동한다.

[43 ~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최근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난 30세 미만의 신세대는 2,000만 명을 넘어 총 인구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600개 이상의 채널과 80억 개 이상의 웹 페이지 등 엄청난 양의 정보 속에서 자라나 기성 세대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 세대로, ‘디지털 세대’라고 부를 수 있다. 따라서 휴대폰을 자신의 분신과 같이 여기고 메신저나 문자 메시지 등 시공을 초월하여 상대와 의사 소통이 가능한 환경에서 자라난 디지털 세대를 이해하는 것은 기성 세대에게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우선 디지털 세대들은 멀티 태스킹(multi-tasking) 또는 병렬 처리(parallel processing)에 능하다. 즉, 기성 세대가 한 가지 일을 수행하면서 다른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에 서툰 반면 이들은 여러 대상에 골고루 관심을 분산해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세대들은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고 느긋한 마음으로 그 답장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들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주고받는 교류를 원한다. 손에 쥐고 있는 휴대폰, 그리고 메신저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들은 자신이 원할 때 언제나 상대방과 의사 소통이 가능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이다. 이들이 어릴 적부터 빠져 들었던 게임을 보면 상상이 같 것이다. 하나의 게임 단계가 끝나면 즉각 피드백과 평가가 따른다. 지식을 얻을 때도 인터넷에서 하이퍼 링크로 연결된 페이지를 그때 그때 넘나들며 궁금한 사항을 즉시 해결하며 성장해 왔다. 일본에서는 신세대들의 이 같은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대학 본고사 결과를 단 하루 만에 발표하는 대학이 생겨났다.

현대 사회의 개인은 정보 통신 수단의 발달로 사소한 일에도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으며, 의견을 나누고 합의를 통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블로거나 미니 홈 페이지 등을 살펴보자. 저마다 청중이기보다 주연배우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들은 월드컵 거리 응원이나 풋볼 시위에서 보였던 신세대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세대에게는 ‘놀 때 놀고, 일할 때 열심히 일하자.’는 식의 이분법적 구분은 설득력이 없다. 그들은 놀이나 게임처럼 일과 공부에 도전적인 요소와 재미가 있기를 바란다. 반면에 지루하고 재미없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집중하지 않는다.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고차원의 게임을 즐기며 성장한 이들을 이끌어내는 힘은 바로 목표를 향한 도전성과 재미다. 기성 세대는 흔히 ‘요즘 젊은 것들은 집중력이 떨어져.’라며 혀를 차곤 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 과연 이들에게 도전적인 목표와 즐거움을 줬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어디에서나 이렇게 새로운 특성을 지닌 디지털 세대들을 만날 수 있다. 과연 이들이 사회에 주력으로 편입되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올까. ㉠ (라)는 격언처럼 새로운 사회는 새로운 인재가 이끌어 갈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기성 세대, 디지털 세대 중 어떤 한 쪽의 사고 방식이나 행동 양식이 더 우월하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두 세대는 그저 ‘다름’ 뿐이다.

43.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 ① 디지털 세대의 사고 방식
- ② 디지털 세대의 행동 특성
- ③ 디지털 세대의 성장 환경
- ④ 디지털 세대의 유형별 특징
- ⑤ 디지털 세대의 의사 소통 방식

44. 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용을 통해 사회의 통념을 반박하고 있다.
- ②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대립되는 주장을 소개한 다음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일반적 원리를 바탕으로 구체적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 ⑤ 현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45. 위 글의 논지에 맞는 기성 세대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 보 기 〉

- ㄱ. 디지털 시대라고 하지만 정신적 가치를 소홀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 ㄴ. 생활 방식이 우리와 다르더라도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 ㄷ. 기성 세대라고 해서 요즘 같은 시대에 디지털 기기들을 다루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어.
- ㄹ. 디지털 세대들이 우리와 생각이 다른 건 당연하다고 봐. 우리와 살아온 환경이 다르잖아.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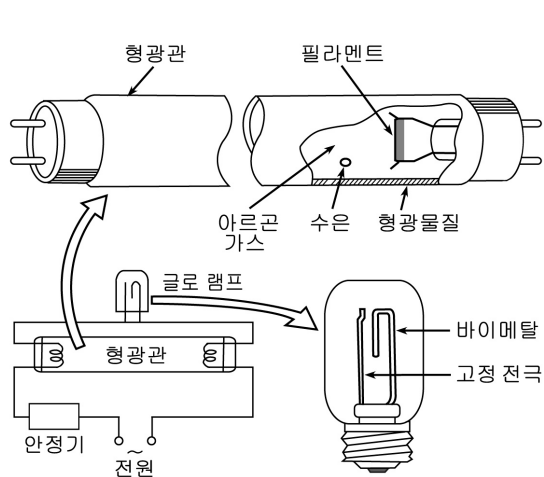
46. 문맥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궁하면 통한다
- ② 새 술은 새 부대에
- ③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 ④ 굴러 온 돌이 박힌 돌 빼 낸다
- ⑤ 국수 잘하는 솜씨가 수제비 못하랴

[47 ~ 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전등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모두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변환한다.’는 공통의 원리를 갖고 있으며, 그 변환하는 방법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열방사를 이용한 백열등이고, 또 하나는 전기 루미네선스(Luminescence)를 이용한 방(放)전등이다.

형광등은 방전등의 일종으로, 거리의 네온사인이나 수은등과 같은 종류이다. 이들 전등은 특수한 가스를 유리관에 넣은 후, 유리관 양끝 전극에 높은 전압을 가하여 방전(放電)·발광(發光)시키는 유형이다. 방전등의 발광 원리는 루미네선스를 이용해 전기 에너지를 직접 빛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를 일단 열 에너지로 변환하고 나서 빛을 얻는 백열 전구보다 밝은 빛을 얻을 수 있다. 같은 전기 소비량으로 비교했을 때 형광등이 빛을 얻는 효율은 열방사를 이용한 백열 전구의 거의 세 배로, 예를 들어 20와트 형광등은 60와트의 백열 전구와 같은 밝기가 된다.



<형광등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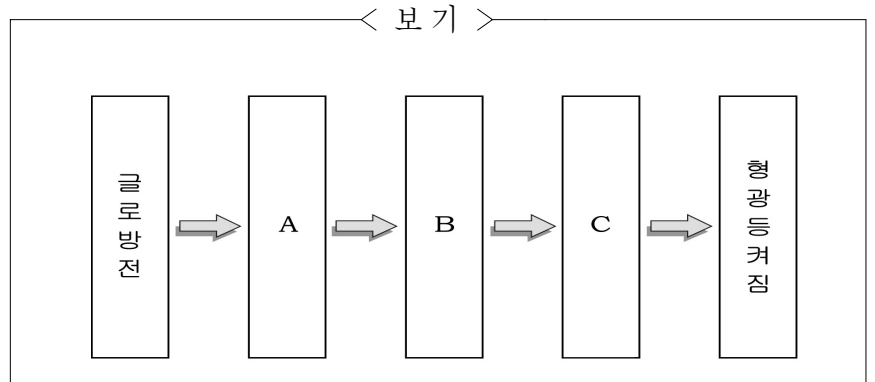
그림은 형광등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형광관은 원통형 유리관으로, 양쪽 끝에 전극이 ㉠ 붙어 있다. 전극은 텅스텐 필라멘트로, 이미터라는 전자 방사 물질이 칠해져 있다. 유리관 속에는 아르곤 등 희소가스와 미량의 수은이 들어 있다. 희소가스는 형광등의 점등을 용이하게 해주어 필라멘트의 약화를 막아주며, 수은은 형광관 속에서 형광등의 빛의 근원이 되는 아크 방전을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유리관 내벽에는 형광 물질이 칠해져 있는데 그 종류에 따라 빛의 색깔이 달라진다. 글로 램프는 형광관의 초기 방전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하며, 안정기는 형광관의 방전을 안정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형광등의 스위치를 켜면 ㉠ 글로 램프의 한쪽 전극에서 다른 한쪽 전극으로 전자가 날아간다. 글로 램프의 빛이 푸른색을 띠는 것은 이 방전에 의한 것이며, 이를 글로 방전이라고 한다. 글로 방전이 일어나면 글로 램프 내부에 열이 발생하여 두 개의 전극이 접촉한다. 전극이 접촉하면 글로 방전은 멈추고 글로 램프가 꺼진다. 글로 램프가 꺼지면 열이 식어 두 개의 전극은 다시 원래대로 떨어진다. 이 순간 형광관의 양쪽 끝 필라멘트에 고전압이 걸려 전극에서 열전자가 튀어나온다. 전극에서 튀어나온 열전자가 수은 원자와 충돌하면 아크 방전이 일어나 자외선이 발생한다. 이 자외선이 형광관 안쪽 형광 물질에 닿으면 가시광선으로 바뀌어 형광관 밖으로 ㉡ 나오게 된다. 그 결과 형광등에 빛이 들어오는 것이다.

47. 위 글을 읽고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형광등에서 나오는 자외선 때문에 눈이 피로해지겠군.
- ② 형광등이 깨지면 유해한 수은에 인체가 노출될 수 있겠군.
- ③ 같은 시간 불을 켜 놓았을 때 백열등이 형광등보다 더 뜨겁겠군.
- ④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백열등을 형광등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군.
- ⑤ 어떤 불빛의 형광등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실내 분위기가 달라지겠군.

48. 형광등이 켜지는 과정을 <보기>과 같이 나타냈을 때, A ~ C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 | A | B | C |
|---|-----------|-------------|-------------|
| ① | 열전자 방전 | → 자외선 나옴 | → 수은 원자와 충돌 |
| ② | 열전자 방전 | → 수은 원자와 충돌 | → 자외선 나옴 |
| ③ | 자외선 나옴 | → 열전자 방전 | → 수은 원자와 충돌 |
| ④ | 자외선 나옴 | → 수은 원자와 충돌 | → 열전자 방전 |
| ⑤ | 수은 원자와 충돌 | → 열전자 방전 | → 자외선 나옴 |

49. ㉠의 역할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음악을 들을 때 음량을 증폭시켜 연주의 감동을 느끼려고 설치한 스피커
- ② 펌프를 작동시킬 때 물을 잘 끌어 올리도록 부어주는 어느 정도의 마중물
- ③ 배가 항해할 때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향키
- ④ 사물놀이를 공연할 때 악기들이 내는 각각의 음을 조율하는 상쇠의 팽과리
- 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를 울리도록 천장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

50. ㉡, ㉢와 바꿔 쓸 말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 | ㉡ | ㉢ |
|------------|-----------|
| ① 부착(附着)되어 | 방출(放出)된다. |
| ② 부착(附着)되어 | 배출(排出)된다. |
| ③ 정착(定着)되어 | 방출(放出)된다. |
| ④ 정착(定着)되어 | 배출(排出)된다. |
| ⑤ 유착(癒着)되어 | 유출(流出)된다. |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